

August 2020

NEWSLETTER



한글고대사·고고학연구소
Institute of Korean Archaeology and Ancient History (UKAA)

연구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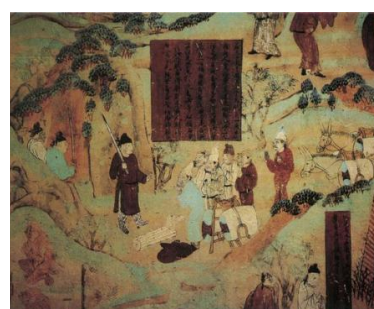
외부 연구비 수주

제11회 학술회의:
고대 유라시아 네트워크
관점에서 바라본 연해주

학술칼럼: 실크로드를
향한 수 양제의 야망



2020년 8월 20일 제11회 학술회의: 고대 유라시아 네트워크 관점에서 바라본 연해주를 개최하였다.



수 양제의 적극적인 서역 개척의 이면에는 실크로드를 향한 야망이 반영되어 있다.

03 연구소 소개

연구소 소식

04 외부 연구비 수주

학술활동

06 제11회 학술회의 개최

"고대 유라시아 네트워크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과 연해주"

학술칼럼

10 실크로드를 향한 수(隋) 양제(煬帝)의 야망

연구소 소개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는 2014년 12월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설연구소로 설립된 이후로 경희대 연구처 부설 '한국고대사·고고학 연구센터'를 거쳐 2017년 4월 경희대 부설 연구소로 독립하였다. 본 연구소는 설립 이후로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과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고대사/고고학 분야 연구를 선도해 왔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사업으로 “학제 간 협동에 기반한 고조선과 북방문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2019년 9월부터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전략적지역연구형 신북방정책 분야)로 선정되어 “고대 한국-유라시아 네트워크와 신 실크로드의 정립”이라는 주제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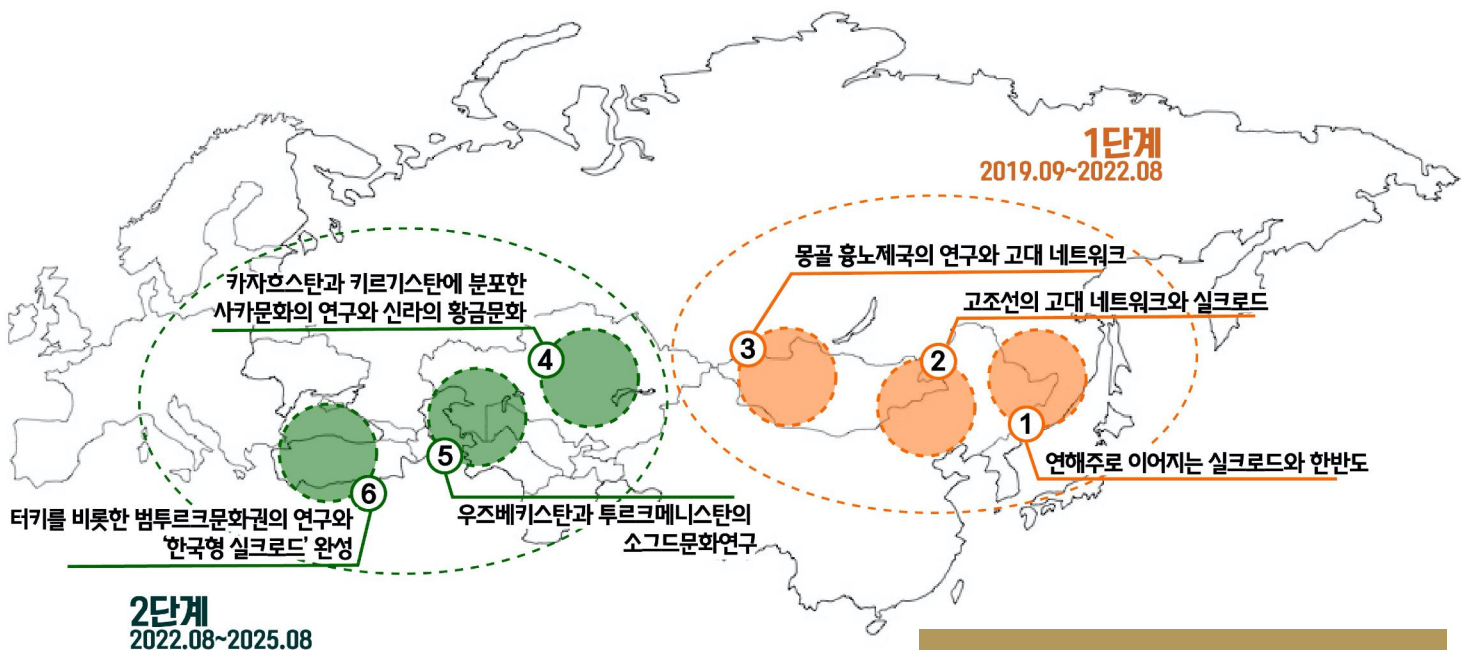
사업 소개

본 연구소에서 현재 수행 중인 “고대 한국-유라시아 네트워크와 신 실크로드의 정립” 연구사업은 한국사의 무대를 한반도로 한정하거나 과도하게 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결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과 이웃하며 역사를 함께 했던 북방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과 한국 고대사의 관계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자료를 연구하고 공유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유라시아 지역은 경제·문화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곳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은 한국과 유라시아 여러 나라 사이의 연계성을 증진함으로써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한반도와 유라시아 지역의 교류 네트워크를 복원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학술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News Letter 간행 취지와 내용

본 News Letter는 현재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고대 한국-유라시아 네트워크와 신 실크로드의 정립” 연구 성과 확산과 사회 환원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News Letter에서는 연구소의 학술적 성과를 집약하여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연구 동향을 소개하는 등 본 연구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학술활동 정보를 담아 매년 4차례 간행될 예정이다.



연구 사업의 단계별 내용과 대상 지역

외부 연구비 수주 - 새로운 연구를 기획하다(2)

김해 대성동 고분군 동물뼈 자료의 재검토

본 연구소는 고대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고대사/고고학/고고과학적 탐구를 통해 고대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자료를 연구하고 공유하고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는 새로이 보고되는 자료나 시료에 대한 검토가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보고되었던 자료 및 시료에 대한 재검토 또한 본 연구소의 연구목표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대성동 고분군 유적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삼국시대 가야 무덤으로, 인골과 더불어 많은 동물뼈가 출토되어 학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기존에 선배 연구자들에 의하여 출토된 동물뼈에 대한 1차 육안동정이 완료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대성동 고분군 출토 동물뼈에 대한 고고과학적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에 출토된 동물뼈 자료가 근래 상당수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가야지역 수장급 무덤에서 출토된 동물뼈에 대한 고고과학적 연구는 수행된 바 없기에, 본 연구소에서는 국립김해박물관과 협의하여 김해 대성동 고분군 출토 동물 뼈 DNA 및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을 목표로 하는 연구협약을 체결하였다. (용역과제명: 김해 대성동 고분군 출토 동물 뼈 DNA 및 안정성동위원소 분석, 연구책임자: 홍종하, 경희대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김해 대성동 고분군 출토 동물 뼈 DNA 및 안정성동위원소 분석”

초근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수습한 사람 및 동물 유체에 적용되는 다양한 생물고고학적 연구기법들 중 안정성 동위원소 및 DNA 분석은 옛 인구집단의 식생, 환경, 이주와 교역과 같은 생활 환경 전반을 이해하고 복원하는 데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같은 원소가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질 때 이를 동위원소 (isotope)라고 하는데, 이러한 동위원소는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달라 질량의 차이를 보인다. 안정성동위원소의 비율은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 달라지며, 사람 및 동물의 경우 그들이 섭취한 음식이나 환경 등으로 인해 고유한 동위원소비율을 나타낸다. 이러한 비율은 이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비율 분석을 통하여 당시의 식생활/출신지역 등의 추적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수집한 사람 및 동물뼈에 대한 안정성동위원소 연구는 옛 인구집단의 이주와 교역, 동물 사육에 관한 인문학적 가설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 중 스트론튬 및 산소 동위원소는 인구 집단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인데, 생물고고학 분야에서는 사람/동물의 출신지 추정 및 집단의 이주 양상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스트론튬은 암석, 토양, 강물, 빗물, 지하수, 바닷물 등에 미량원소로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토양을 통해 치아 법랑질(enamel)이나 뼈를

구성하는 수산화인회석 결정체의 칼슘에 치환되어 사람 및 동물에게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동위원소 비율은 지역 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을 이용하여 고대 인간 이동 경로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산소 동위원소는 바닷물, 민물 등 사람 및 동물들이 섭취하는 수분에 따라 고유한 값을 가지며 이 동위원소 조성은 온도, 강수량, 고도 및 위도를 포함한 다양한 지리적, 지형적, 생태 학적 특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스트론튬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차이를 반영한다. 다만 산소 동위원소의 경우 가공식품 섭취나 모유 수유와 같은 원인으로 동일 지역 내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스트론튬 동위원소 결과값과의 교차비교를 통하여 해당 동물의 출신지를 판별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치아의 경우 다른 뼈와 달리 재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치아 생성기 스트론튬/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고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변하지 않으며, 이를 분석하면 해당 사람/동물이 어떤 지역에서 유래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동물 뼈에 대한 DNA 분석의 경우 우선 동물의 정확한 종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 발굴 현장에서 발견되는 동물 뼈는 상당수가 일부만 남아있거나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 육안해부학 및 조직학적 연구기법을 사용하여 그 종을 정확히 감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DNA 분석은 해당 동물 종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옛 동물 뼈에서 DNA를 얻어 분석하게 되면 계통학적 정보까지 획득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한 옛 동물의 유전학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축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가축화한 야생동물의 후손으로서 과거 어느 시기엔가 한반도로 유입되어 전통 사회의 일부분이 되었다. 하지만 대성동 고분군에서 발견된 소 혹은 말과 같은 가축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소 내지는 말과 어느 정도로 유사한 유전적 형질을 지녔는지는 알기 어렵다. 특히 말의 경우 유전학적 병목현상이 심해 과거에 살고 있었던 말의 Y 유전형질 다형성이 현대에 와서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가야 말의 유전형질을 분석하여 밝힐 수 있다면 한반도 남부에서 예전에 서식하였던 말에 대한 정보를 해외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발견된 말/현대 한반도에 서식중인 말의 유전형과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를 밝힐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볼 때 발굴현장에서 수집한 동물뼈에 대한 DNA 및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은 보고 개체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보고된 것도 일부 지역에만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발굴현장 유래 동물뼈에 대한 탄소와 질소 분석을 통한 식생 복원의 경우 근래 들어 선구적인 몇몇 사례가 시도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지만, 아직 스트론튬과 산소에 대한 분석은 아직 시도된 바 없다.

또한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수집한 소와 말뼈에 대한 유전학적 분석도 몇몇 연구자들에 의한 업적 이외에 연구가 수행된 바 없으며, 특히 가야 지역 초기철기시대 소나 말 뼈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하다. 무엇보다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수행한 연구를 통해 충분한 성과가 보고되어야 옛 한반도 남부 인구집단의 이동과 교역, 동물 사육에 대한 증거와 같은 생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보고는 많은 선구적인 업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치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안정성 동위원소 및 DNA 분석을 통해 가야 대성동고분군에서 수집된 동물뼈의 종을 정확히 감별하고, 가능한 경우 감별된 소나 말이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것인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것인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나아가 소나 말 미토콘드리아 DNA 및 Y chromosome에 대한 유전학적 분석을 통하여 대성동 고분군에 부장된 옛 가축의 유전학적 계통분석 또한 실시하고자 한다.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제11회 학술회의

『고대 유라시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과 연해주』

본 연구소는 지난 8월 20일 『고대 유라시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과 연해주』라는 주제로 연구소 제11회 학술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현재 본 연구소가 추진 중인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 “고대 한국-유라시아네트워크와 신 실크로드의 정립”의 1차년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로서 마련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표, 토론, 사회 및 학술행사 진행요원을 포함한 최소인원을 구성하여 대면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술회의는 Zoom 화상회의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하였다. 여기서 발표한 연구 성과는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인문학연구』 44호(2020.8)에 게재될 예정이다.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제11회 학술회의

고대 유라시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과 연해주

일 사: 2020년 8월 20일(목) 14:00~17:10
장 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문과대학 1층 소강당
주 최: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KAA)
후 원: 한국연구재단

[사 회] 홍종하 (경희대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14:00~14:10	개 회 사 조인성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소장)
14:10~14:30	[발표1] 강인옥 (경희대학교) 유라시아 초기 금속제련기술과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계통
14:30~14:50	[발표2] 한진성 (경희대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동북아 편두 자료의 분포와 연구현황 검토
14:50~15:10	[발표3] 이승호 (경희대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1~3세기 연해주 지역의 고고문화와 읍루
15:10~15:30	휴 식(Break Time)
15:30~15:50	[발표4] 조인성 (경희대학교) 흑수말갈과 신라
15:50~16:10	[발표5] 안재필 (중앙문화재연구원) “말갈관”으로 보는 만주·연해주 지역 주민집단의 존재양태
16:10~16:20	휴 식(Break Time)
16:20~17:10	【 종합토론 및 총평 】 [좌장] 김경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토론] 권은주 (동북아역사재단), 심재연 (한림대학교), 이후석 (송실대학교)

* 본 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 본 학술회의는 “발표, 사회, 토론, 진행요원”을 제외한 외부 참석자의 방문을 제한하며, 당일 학술회의는 Zoom 온라인 회의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회의링크 추후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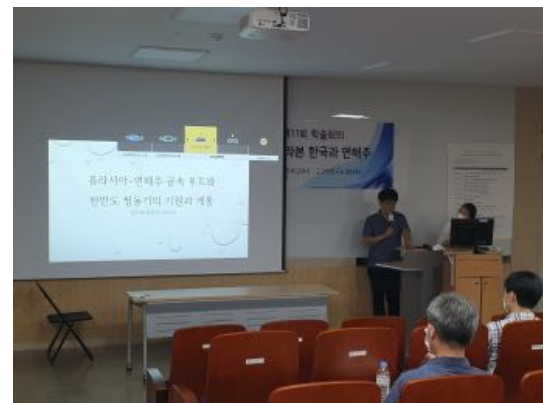
『고대 유라시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과 연해주』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연구소 소속 5인의 연구자가 발표에 나섰고, 학계의 관련 전공자를 좌장과 토론자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발표자와 토론자를 제외한 외부 인사 참여는 없었다. 대신 온라인으로 학술회의 실황을 공개하여 학술회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01 유라시아 초기 금속제련기술과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계통 / 강인욱 (경희대 교수)

먼저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인욱 교수는 한반도 중부 초기 청동기 출토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연원과 성격, 및 유라시아 청동기문화와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원전 15세기 무렵 발생한 동아시아 일대의 기후변화(한랭건조화) 및 인구 급감과 함께 시베리아 세이마-투르비노 청동기 전통이 동아시아에서 ‘카라숙 청동기’ 전통 내지 문화로 구현되며 확산하였고, 이 영향권에 한반도도 포함되었다고 이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청동기 도입 과정에서 관찰되는 유라시아적 보편성과 석검 위주의 사회가 지속되는 특수성에 주목한 강인욱 교수는 ‘청동기시대’라는 시대 명칭 대신 한반도의 특수성과 편의성을 강조한 ‘무문토기시대’라는 시대 명칭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02 동북아 편두 자료의 분포와 연구현황 검토 / 한진성 (IKAA 연구원)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진성 연구원은 전근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확인되는 ‘편두(偏頭)’ 자료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통해 자료의 분포와 연구현황을 정리하였다. 특히 한국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편두(偏頭)의 개념을 서구 체질인류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인위적 두개골 변형’의 하위 개념으로 정의하고, 동북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극동지역) 범위 안에서 관련 사례를 소개하였다. 한편, 각 자료 간 유사성 및 차이점을 성별, 발견된 유적의 고고학적 정황, 추정연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 동북아시



아 편두 인골 사례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선사시대에는 후두골이 일직선으로 납작한 편평형의 비중이 높은 경향성을 파악했다. 또한, 역사시기 편두를 한 사람은 매장유적의 성격과 부장품을 통해 특수한 신분이나 지위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함으로써, 국내 편두 연구의 지평 확대를 시도했다.

03 1~3세기 연해주의 考古 문화와 挾婁 / 이승호 (IKAA 연구교수)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이승호 연구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挾婁 관련 고고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1~3세기 읍루 역사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 특히 발표의 주된 논의는 『三國志』 東夷傳의 읍루 관련 기사에 대응하는 고고 문화를 해명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구체적으로 읍루의 물질문화라 할 수 있는 고고 문화로서 오늘날 黑龍江 중·하류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폴체-蜿蜒河 문화, 중국 三江平原의 滾兔嶺-鳳林 문화, 團結-크로우노프카 문화와 직접 남북으로 연결해 있는 연해주 폴체 문화, 그리고 牡丹江 중·하류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東康 유형-東興 문화가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三國志』 東夷傳에 보이는 東夷 사회에 대한 기록이 많은 부분 高句麗와 曹魏 사이 전쟁이 한창이던 265년 당시 입수된 것으로 이해하고, 특히 읍루 관계 기록은 王頎가 이끄는 魏軍이 挾婁의 남쪽 경계에까지 진군하면서 입수한 정보에 바탕을 두었다고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당시 王頎의 부대가 조우한 挾婁 집단은 최종적으로 연해주 폴체 문화의 담당자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04 흑수말갈과 신라 / 조인성 (경희대 교수)

네 번째 발표를 맡은 조인성 교수는 통일신라 시대 흑수말갈과 신라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양자의 관계가 이후 고려 초의 흑수말갈과 고려, 11세기 동여진과 고려의 관계로 전개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통일신라 시대로부터 고려 초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동해안 일대에서 확인되는 흑수말갈 및 여진의 침입 사례와 해로를 통해 침구하는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신라 시대로부터 이미 동해안 일대에 다수의 방어성을 구축하였던 정황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흑수말갈의 침입을 대비하여 동해안 일대에 성을 쌓는 양상이 신라 시대로부터 고려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면서, 동해안 일대에서 9세기 초부터 축성이 본격화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05 “말갈관”으로 보는 만주·연해주 지역 주민집단의 존재양태 / 안재필 (중앙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다섯 번째 발표를 맡은 안재필 연구원은 “말갈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만주와 연해주 지역 주민집단의 존재 양태에 접근하였다. 특히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출토되는 ‘말갈관’에 대한 새로운 형식 분류안을 제시하고, ‘말갈관’의 곡률과 문양에 내재된 지역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관련 문헌사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지역성이 간접적으로 말갈 스스로가 느끼는 배타성, 독자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말갈관’에 표출된 지역성은 곧 속말·흑수·불열·백산으로 구분되는 말갈 집단의 정치·외교적 독자성으로 드러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종합토론]

중 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김경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권은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과 심재연 한림대 한림고고학연구소 연구교수, 송실대학교의 이후석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실크로드를 향한 수(隋) 양제(煬帝)의 야망

이진선(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원)



【사진 1】 돈황 막고굴(莫高窟) 제45굴 남벽에서 발견된 성당(盛唐) 시기의 벽화 「상인우도(商人遇盜)」이 벽화는 상인이 도적을 만나 칼로 위협받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도판 출처: 돈황연구원 저, 최혜원·이유진 역, 2001 『敦煌』 범우사, 187쪽)

머리말

수 (隋) 왕조는 널리 서역(西域)으로 세력을 확장해 동서 교역의 이득을 차지하려고 하였다. 당시 돈황(敦煌)에서 출발하는 세 가지 동서교통로 가운데 북도(北道)는 이오(伊吾, 지금의 哈密)→포류해(蒲類海)→철록부(鐵勒部)→돌궐(突厥)의 가한정(可汗庭)→불림국(拂菻國, 당시 비잔틴 제국)을 지나는 경로이고, 중도(中道)는 고창(高昌, 지금의 吐魯番)→언기(焉耆)→구자(龜茲)→소록(疏勒)→총령(葱嶺, 파미르 고원)→소무구성(昭武九姓)→파사(波斯, 당시 페르시아)를 지나는 경로이며, 남도(南道)는 선선(鄯善, 지금 신장위구르자치구의 鄯善)→우전(于闐)→주구파(朱俱波)→총령(葱嶺)→호밀(護密)→토화라(吐火羅, 지금 아프가니스탄 서북부)를 지나는 경로였다. 이들 실크로드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동서교역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동서 교역의 중계자로 부를 누리고 있던 토욕혼(吐谷渾)과 이오(伊吾)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수 왕조는 1차적으로 남쪽에 위치한 진(陳) 왕조를 정복해 중원을 통일하기 이전에는 서역으로 힘을 쏟을 여력이 없었다.

수 왕조가 중원 통일에 전념하던 당시 서역을 호령하던 세력은 북방의 초원에 위치한 돌궐(突厥)이었다. 돌궐은 비

록 내부 분열로 582년 동·서로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토욕혼, 이오, 고창(高昌) 등의 나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히 토욕혼 왕실과는 상호 통혼으로 결속을 다졌는데, 돌궐 계민(啟民) 가한(可汗)의 아들 막하돌설(莫賀咄設, 이후의 處羅可汗)의 외가가 바로 토욕혼이었다. 토욕혼 역시 돌궐의 휘하에 있으면서도 서역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서역(西域)을 향한 양제(楊帝)의 포부

수 문제(文帝) 초기에는 돌궐이나 토욕혼 등의 공격에도 변경(邊境)의 둔전(屯田)을 철수하는 등 서역제국(西域諸國)에 대해 다소 수세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수 왕조가 장손성(長孫晟)의 이간책으로 돌궐의 내부 분열을 가속화 시키고, 문제 개황(開皇) 9년(589) 남방의 진(陳)을 끝으로 천하를 일통하면서 대(對) 서역 정책은 전환점을 맞이한다. 개황 17년(597) 토욕혼 가한(可汗)의 폐립(廢立) 문제로 토욕혼 국내가 혼란스러웠던 상황 역시 수의 서역 경영에 좋은 여건을 형성해 주었다.

수 왕조의 서역 진출은 다음 양제 시기에 본격화되었다. 양제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차리고 실행에 앞장 선 것은 바로 배구(裴矩)이다. 그는 양제를 위해 한 가지 간언을 올린다. 즉 당시 돌궐과 토욕혼이 호족(胡族)과 강족(羌族)의 땅을 나누어 관장하고 있어 그들이 조공하러 오는 길을 막고 있으며, 상인들은 중국의 신첩(臣妾)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당시 교역의 어려움에는 사막이라는 거대한 자연뿐 아니라 약탈을 해가는 도적떼도 있었다. 게다가 오아시스 소국가들 역시도 세력 확장을 위해 서로 침략하기 일쑤였다. 때문에 오아시스 소국가들이나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강대국의 휘하에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교통로의 확보를 원했다. 배구는 바로 이러한 점을 꼬집어 양제에게 간언한 것이었다.

이어서 배구는 토욕혼은 쉽게 병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양제에게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좋은 명분이 되었고, 배구의 말을 들은 양제는 자신의 포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감개무량하여 진(秦) 시황제(始皇帝)와 한(漢) 무제(武帝)의 공로를 흠모해 장차 서역과 통교하려는 마음을 가졌고, 사이(四夷)의 경략에 관한 일은 모두 배구(裴矩)에게 위임하였다.

-『자치통감(資治通鑑)』권180, 양제 대업(大業) 3년(607) 10월 조

양제가 흠모했던 진(秦) 시황제(始皇帝)는 시황(始皇) 27년(기원전 220) 농서(隴西)를 순행하여塞外(塞外)에 위엄을 보였고, 한(漢) 무제(武帝)는 기원전 139년 장건(張騫)을 파견하여 동서교통로를 개척하고, 원정(元鼎) 5년(기원전 112) 서쪽으로 순행하여 조려하(祖厲河)에 이르렀다.

장건(張騫)은 서역에 관한 지식을 처음 공식적으로 중국에 알려준 인물이다. 당시 유목 사회에서는 월지(月氏)와 흉노(匈奴)라는 강력한 두 세력이 있었다. 그런데 고비 사막에 있던 흉노가 하서회랑(河西回廊)에 본거지를 두고 있던 월지를 공격하였고, 이 월지는 흉노에게 밀려 점차 서쪽으로 도망가다가 파미르 고원을 넘어 중앙아시아에 정착하였다. 도피 중에 월지의 왕은 흉노에게 잡혀 살해당하고 두개골이 술잔으로 만들어지는 치욕을 당했다. 한 무

제는 북방의 흉노를 공격해 영토를 넓히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흉노인(匈奴人) 포로에게서 월지왕의 소식을 듣고는 흉노와 원수관계가 된 월지를 찾아가 함께 흉노를 공격하고 동맹을 맺으려 하였다. 그리하여 파견된 사절이 장건이었다.

기원전 139년 장건은 길 안내자와 부하들 100여 명을 데리고 장안에서 월지로 향하는 여정을 출발하였다. 당시의 교통로상 월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흉노 땅을 거쳐야 했는데, 결국 흉노에게 잡힌 장건은 약 10년의 세월을 흉노 땅에서 살았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지 않았던 장건은 가족과 몇 명의 부하를 데리고 기원전 129년 경 흉노 땅을 탈출, 파미르 고원을 넘어 월지국에 이르렀다. 하지만 월지는 이미 비옥한 땅에 정착한 상태였고, 흉노가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굳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장건은 빈손으로 귀향길에 오르게 되는데, 흉노를 피해 타림분지 남쪽으로 먼 길로 돌아갔지만 재차 흉노에게 잡히게 되고, 1년 남짓 흉노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탈출해 장안으로 귀환하였다.



[사진 2] 돈황 막고굴(莫高窟) 제323굴 북벽에서 발견된 초당(初唐) 시기의 벽화 「장건출사서역(張騫出使西域)」
이 벽화에서 묘사된 뒤의 두 사람은 지절(持節)을 들고, 장건은 한 무제의 명령을 받아 실크로드를 개척하려 나서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도판 출처: 段文傑, 樊錦詩卷 主編・中國敦煌壁畫全集編輯委員會 編, 2006 『中國敦煌壁畫全集 5 敦煌初唐』 天津: 天津人民美術出版社, 2006, 106쪽)

장건이 동서교통로를 개척했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장건이 서역으로 떠나기 이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이 교류하고 있었다. 이는 장건이 지금의 사마르칸트 너머에 있는 대하국(大夏國)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의 시장을 둘러보고 남긴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즉 『사기(史記)』에 의하면, 장건은 자신이 중국인 최초로 서역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감격해 하며 시장을 산책하던 중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는데, 대하국의 시장에서 사천(四川) 지방의 옷감과 대나무 지팡이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들 물품은 인도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유통되고 있었다. 중앙아시아 상인들은 오아시스로와 마역로(馬易路)의 주역으로 유라시아의 경제를 움직였던 것이다.

이렇듯 진 시황과 한 무제의 업적을 흠모한 수 양제는 서역으로의 세력 확장을 위해 사절단 파견, 사신과 상인의 왕래를 담당하는 관부(官府) 설치, 대외 전쟁, 하서(河西) 지역 순행(巡幸)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사절단의 파견과 담당 관부(官府) 설치

양제는 먼저 서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시어사(侍御史) 위절(韋節)과 사예종사(司隸從事) 두행만(杜行滿)을 서역제국(西域諸國)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그들은 계빈국(計賓國, 지금 편자브 북쪽)에 도착해서 마노(碼瑙)로 만든 잔을 얻고, 중인도의 왕사성(王舍城)에서는 불경(佛經)을 얻었으며, 중앙아시아의 사국(史國)에 이르러서는 사자 가죽 등을 얻어서 돌아왔다. 사행(使行)을 다녀온 뒤 위절은 『서번기(西蕃記)』를 지어 양제에게 바쳤다. 배구는 무위(武威)와 장액(張掖) 등지에서 수 왕조로 파견된 사절단을 맞이하고, 또 상인들을 불러 모아 각국의 지형과 풍습 등에 대한 정보를 얻어 『서역도기(西域圖記)』를 저술하여 양제에게 바쳤다. 이로써 수 왕조는 서역제국(西域諸國)에 대한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렸다.

양제는 서역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서역교위(西域校尉), 서용사자(西戎使者), 안서도호(安西都護) 등을 설치하였다. 서역교위는 조위(曹魏) 때부터 존재하였는데, 남북조(南北朝) 시기 서역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영호서역교위(領護西域校尉)가 설치되었다가 수 양제에 이르러 서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자 사신의 응접 및 서역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다시 설치한 것이다. 대업 2년(606) 무렵에는 서용사자를 비롯한 홍려시(鴻臚寺) 소속의 사방관(四方館)이 낙양(洛陽)의 건국문(建國門) 밖에 설치되면서 서역 사신에 대한 업무가 서용사자에게 이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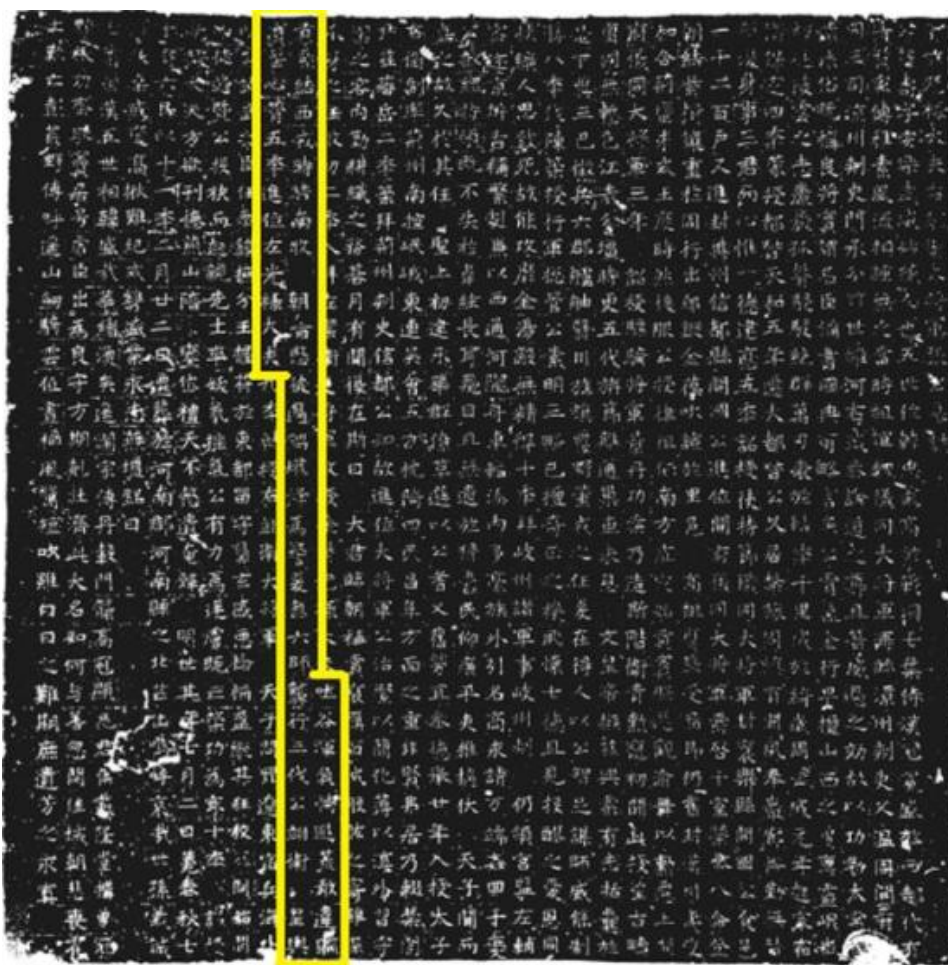
안서도호의 경우 정사(正史) 등의 문헌사료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근래에 출토된 묘지 자료들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다. 즉 송지감(宋知感)의 증조부 송곽(宋廓)이 수의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안서도호(安西都護)였고(<宋知感墓志>), 후방(侯方)의 증조부 후욱(侯昱)이 수의 안서도호였으며(<侯方墓志>), 사교여(史喬如)의 조상이 수의 특진(特進)·안서도호(安西大都護)였고(<史喬如墓志>), 강마가(康磨伽) 형제의 조부 강연덕(康延德)이 안서도호부과의(安西都護府果毅)였다(<康磨伽墓志>와 <康留買墓志>)는 것을 통해 수대에도 안서도호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수의 안서도호는 대업 5년(609)을 전후하여 서역에 변군(邊郡)이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곳에 주둔하는 군대를 통할하기 위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 전쟁과 변군(邊郡) 설치

실크로드를 향한 양제의 야망은 대외 정복 전쟁으로 폭발하였다. 그 첫 대상은 바로 토욕혼이었는데, 토욕혼은 수의 변경을 공격해 그 역량을 가늠하고, 사절단 파견을 빌미로 수의 국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갔다. 양제는 먼저 철륵(鐵勒)을 이용해 토욕혼을 공격하였다. 철륵은 대업 3년(607) 수의 변새(邊塞)를 공격해 둔황(敦煌)에서 출격한 수의 장군 풍자호(馮孝慈)를 이기기도 하였지만, 수가 서돌궐(西突厥)과 교섭에 나서자 철륵의 계

폐가릉(契弊歌楞)은 수 왕조에 화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기회로 양제는 철릭에게 토욕혼을 공격하라고 회유하고, 결국 철릭은 이를 받아들여 군대를 몰아 토욕혼을 대패시켰다. 이것이 제1차 토욕혼 전쟁이다.

철릭의 공격에 서평(西平)으로 도주한 토욕혼 가한 모용복윤(慕容伏允)은 대업 4년(608) 수에 사신을 보내 항복을 요청하였는데, 수의 장군 우문술(宇文述) 등이 이르자 다시 서쪽으로 도주하였다. 우문술 등은 이 제2차 토욕혼 전쟁에서 토욕혼의 주요 거점이었던 만두성(曼頭城)과 적수성(赤水城)을 함락하고, 왕공(王公)·상서(尚書)·장군(將軍) 200인과 남녀 4천을 포로로 잡았다.



[사진 3] 『隋大業11年(615)張壽墓誌銘』의 탁본

이 묘지는 1925년 낙양(洛陽)에서 출토되었고, 현재는 서안(西安) 비림박물관(碑林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장수(張壽)는 제3차 토욕혼 전쟁에서 모용복윤의 서쪽을 포위했던 인물이다. 그의 묘지에서는 3차례에 걸친 토욕혼 원정에 중군한 사실이 전한다(노란색 표시 부분).

(도판 출처: 陳長安 主編, 1991 『隋唐五代墓志匯編(第1冊: 洛陽卷)』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38쪽).

제1, 2차 토욕혼 원정을 토대로 양제는 토욕혼 가한을 그 땅에서 몰아내 토욕혼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앞선 진 시황과 한 무제의 업적에 대한 양제의 흠모와 모방은 하서(河西) 순행과 변군(邊郡) 설치로 완성된다. 양제는 대업 5년(609)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서쪽 하서회랑으로 순행하였다. 양제의 변경 순행은 대외적으로 수렵이나 군대 도열을 통한 무력 과시, 주변 정치 세력의 사절단 및 상인으로부터의 조공, 이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제전에 참가하게 하는 국력 과시, 대내적으로 순행 경로에 위치한 지역의 세금 감면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이 일련의 순행 과정에서 양제는 수 중심의 세계질서 구축에 방해가 되는 토욕혼에 재차 군대를 파견하였다.

우문술의 공격으로 도주한 모용복윤이 무리를 이끌고 복원천(覆袁川)에 자리를 잡자 양제는 모용복윤을 사로잡기

위해 사방으로 군대를 파견해 압박하였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모용복윤이 포위를 뚫고 도주하자 양제는 장군 장정화(張定和), 양묵(梁默), 이경(李瓊) 등을 수차례 파견해 그를 추격하였으나 도리어 그들이 전사함으로써 끝내 토욕혼 가한을 놓치고 말았다. 모용복윤이 당항(黨項)으로 피난하여 후일을 도모하면서 제3차 토욕혼 원정은 끝나고, 양제는 끝내 그를 사로잡을 수 없었다.

하서 순행 과정에서 양제는 제3차 토욕혼 원정을 통해 토욕혼 가한 모용복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빈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양제는 그 땅에 서해군(西海郡)·하원군(河源郡)·선선군(鄯善郡)·차말군(且末郡) 네 개의 군현을 새롭게 설치하였다.

서해(西海)·하원(河源)·선선(鄯善)·차말(且末) 등의 군(郡)을 설치하고, 유배 간 천하의 죄인(罪人)을 수졸(戍卒)로 삼아 이곳을 지키게 하였다. 유권(劉權)에게 명하여 하원군(河源郡)의 적석진(積石鎮)을 지키게 하고 크게 둔전(屯田)을 열어 토욕혼을 방어하면서 서역으로 가는 길을 통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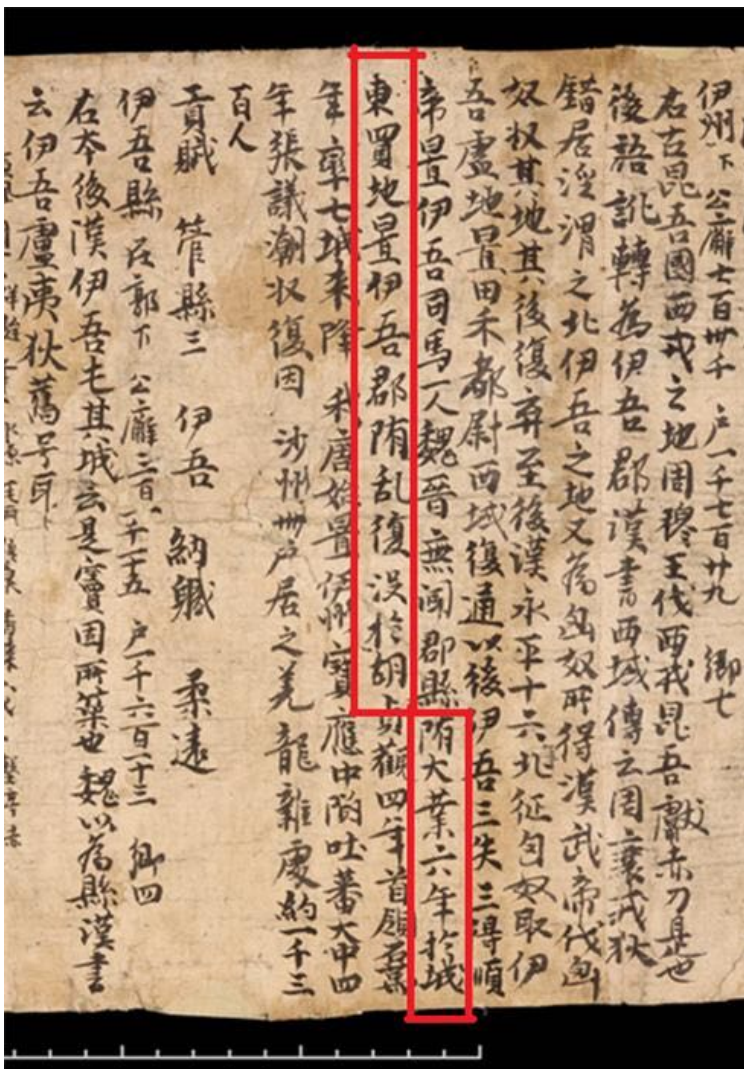
— 『자치통감(資治通鑑)』 권181, 대업 5년(609) 6월 조

토욕혼 옛 땅에 설치된 네 개의 군에는 각각 두 개의 속현이 설치되었다. 이 군현들의 존재는 당시 인물들의 활동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확인되는데, 613년 양현감(楊玄感)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망한 뒤 그와 평소에 교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반휘(潘徽)가 서해군 소속 위정현주부(威定縣主簿)로 좌천되었고, 저량(褚亮)도 서해군사호(西海郡司戶)로 좌천된 일에서 군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차말군은 당시 수의 영토 가운데 가장 서쪽에 위치하였는데, 이 때문에 유배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출토 문서에서도 수대 서역에 설치된 변군의 존재가 확인된다. 둔황(敦煌) 출토 문서「後晉天福十年(945)壽昌縣地境」에서 석성(石城)에 대한 설명에 “본래 한(漢)의 누란국(樓蘭國)이다. … 수에서 선성진(鄯善鎮)을 설치하였다. 수가 혼란해지자 그 땅이 곧 텅 비었다(本樓蘭國. … 隨置鄯善鎮. 隨亂, 其地乃空.)”라는 기록에서 선선군과 그 휘하의 선성진이 확인된다.

이러한 변군 설치로 서평(西平) 임강성(臨羌城) 이서에서 차말(且末) 이동까지, 기련산(祈連山) 이남에서 설산(雪山) 이북까지 동서 4천리, 남북 2천리가 모두 수의 차지가 되면서 수 왕조의 번영이 극에 달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양제는 군대를 파견해 주둔시키고, 천하의 죄인들을 징발하여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지금의 함밀(哈密)에 위치한 이오(伊吾)는 서역 정세에 따라 고창국(高昌國), 철록(鐵勒), 수(隋)로 귀부하였다. 608년 설세웅(薛世雄)의 이오 원정을 토대로 다음해(609) 6월 양제의 하서 순행 과정에서 이오의 토둔설(吐屯設)이 수천 리의 땅을 헌납하자 양제는 설세웅과 배구를 파견하여 610년 한대(漢代)의 이오둔성(伊吾屯城) 동쪽에 성을 축조하고서 이오군(伊吾郡)으로 삼았다. 이오성을 축조하자 서역제국(西域帝國)이 와서 그 연유를 따졌는데, 축조 담당자의 한 명이었던 배구는 번인(蕃人)이 교역하는 길이 멀어 이오에 성을 축조할 뿐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양제가 이오성 축조에 설세웅뿐 아니라 배구를 함께 파견한 것은 이오를 수의 새로운 동서교역의 요충지로 만들기 위한 안배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4] S.0367 「唐光啟元年(885)沙州伊州地志藏卷」 문서

「唐光啟元年(885)沙州伊州地志藏卷」 문서에는 “隋 大業 6년(610) 성 동쪽에 땅을 사서 伊吾郡을 설치하였다(隋大業六年, 於城東買地置伊吾郡.)”라는 기록이 보인다.

(문서 원본: <http://idp.bl.uk>에서 367검색. 녹문 및 사진 출처: 王仲榮, 1993, 『敦煌石室地志殘卷考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40쪽)

양제는 서쪽 땅에 새롭게 설치한 군현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였다. 둔전의 개간은 하원군 뿐 아니라 “옥문(玉門)과 유성(柳城) 밖에 둔전(屯田)이 흥성하였다”고 할 정도로 왕성하였다. 농서(隴西)와 하우(河右)는 넓은 땅에 비해 백성이 희박한 곳이었기 때문에 양제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 죄수를 이 지역으로 사민시키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러한 사민과 주둔은 이 지역을 공고히 하겠다는 국가적 사업의 일환을 의미할 것이다.

군현제를 토대로 변경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은 해당 지역의 자체적인 둔전 개간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었고, 이 둔전 활용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사방의 군현에서 양식을 운반해 공급하였으며, 심지어 관중(關中)의 부유한 자들에게는 자산에 따라 많게는 수 백 두(頭)에 이르는 나귀를 차출하여 이오군·하원군·차말군으로 가서 양식을 운반하게 하였다. 수천 리의 땅을 개척하였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해마다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었다. 후대 사람들은 소모되는 비용이 날로 증가하여 내지의 자원을 비워 변경에 공급하는 것을 무익하다고 비난하였지만, 양제는 중원 통일을 이룩한 황제로서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내지의 질서를 외지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실크로드에 대한 야망을 실현했던 것이다.

Aug 2020

NEWSLETTER



사진 몽골 흡수골 호수의 8월(©한진성)

IKAA Newsletter 2020 Vol.4

발행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이 웹진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NRF-2019S1A5C2A01083578)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문과대학 503호

TEL 02-961-2377

MAIL ikaa@khu.ac.kr

WEB <https://www.ikaa.or.kr>